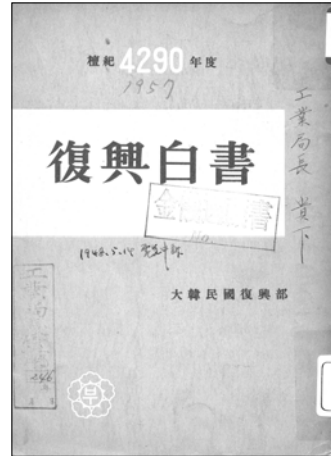


42 復興白書 부흥백서

1958년 / 대한민국 부흥부 / 307면 / 10.10-15 대91부 1958

1957년판 부흥백서인데 1958년 5월에 간행되었다. 1958년 8·15,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10주년을 기념하여 195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분석한 귀중한 자료다. 특히 해방 이후의 원조사업 관계와 6·25 전쟁 복구분야는 이 백서 이외 이렇다 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방면에 관하여서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부흥부(復興部)에서 ‘부흥’이란 경제부흥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에는 지금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흥부는 지금의 경제기획원의 전신으로, 당시 부흥부 직제에는 국토개발 기능이 들어 있었다. 전체 307면의 책인데 제1부 경제부흥과 제2부 우방들의 경제원조로 대별하고 있다.

이 백서에서는 6·25 전쟁 피해를 일반 공업시설 11.7%, 주택 16.9%로 기록하는 한편, 총 피해액은 미화 30억 달러 상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1956년까지 전쟁복구기를 겪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처참한 전쟁으로부터 재기 소생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와 전쟁에서 파생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수습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56년의 생산이 6·25 발발 전 해인 194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로써 경제발전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45년~1957년 사이의 외국원조 실태를 보면 GARIOA 4억 3,392만 1천 달러 이고, ECA 2억 2,021만 7천 달러, CRIK 4억 5,737만 5천 달러, UNKRA 1억 995만 8천 달러, ICA 8억 8,813만 6천 달러, PL480은 7,848만 3천 달러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1945년 493만 4천 달러, 1946년 4,949만 6천 달러, 1947년 1억 9,989만 9천 달러, 1948년 1억 7,959만 2천 달러, 1949년 1억 1,639만 9천 달러, 1950년 5,422만 1천 달러, 1951년 1억 2,948만 6천 달러, 1952년 1억 5,961만 2천 달러, 1953년 1억 9,345만 9천 달러, 1954년 1억 4,725만 2천 달러, 1955년 2억 4,393만 1천 달러, 1956년 3억 3,581만 4천 달러, 1957년 3억 7,399만 5천 달러 등 도합 21억 8,809만 달러인데, 22억 달러란 당시로서는 거금임에 틀림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기술자의 해외 파견인원을 보면 1955년 255명, 1956년 217명, 1957년 292명 등 도합 76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다. 또한 1948년 5월 14일을 기하여 남쪽으로 보내던 전기 송전 중단으로 발전소 건설에 심혈을 쏟기도 했다. 어쨌든 이 책은 정부수립 후 최초의 백서라는 데 큰 뜻이 있다.